

“VBS 를 보면서”

지금 한국은 자녀들 낳지 않아서 OECD 국가들 가운데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당 평균 1.12명 정도하니 한 가정 당 한 명 꼴입니다. 예전에는 초등학교 교실 마다 학생이 깔들어차서 콩나물 교실이라고 한탄하였습니다. 그 아이들을 수용할 시설도 없으면서 아이만 많이 낳는다는 자조섞인 말들과 푸념들을 했습니다. 이제는 그 옛날이 그리워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즘 생각있는 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하고있습니다. “콩나물 교실이라도 좋다. 많이만 낳아 다오” 어느 부자는 세명 이상 낳으면 한 명 당 천만원씩 격려금을 지불하면서 자녀 낳기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가 사회학적으로 이렇습니다. 첫째는 아이를 낳는 것보다 키우기가 더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사교육비 문제입니다. 두번째는 젊은 부부들은 자신의 후세를 생각하기 보다는 본인들이 편하게 사는 것을 선호합니다. 고생하면서 키워봤자 노후에 자식들에게 덕을 보는 시대가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한국이 이런 상태로 나가면 많은 사회학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일하는 노동인구보다 일하지 않고 정부 도움에 의존하는 노년층이 점점 많아 집니다. 결국 정부 재정도 문제가 생길 것 입니다. 미국도 2030년쯤 되면 그런 노동인구의 저하 때문에 세금이 줄어들어 사회보장 연금의 운영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가져도 자녀를 못 낳는 동성애는 그런 관점에서도 인류공영에 역행하는 악의 요소입니다. 이번에 여름 어린이 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자랑찬 어린이 자녀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저 모여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보기 좋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편안함만 찾으면 안됩니다. 우리 교회도 멀리 바라보고 후세를 생각하며 나가는 비전있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름 어린이 성경학교를 위해 헌신하신 교육부 목사님들과 교사들과 봉사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